
자금순환통계의 1993 SNA 개편 결과

I. 개편 필요성 및 추진경과

UN, IMF, OECD 등 국제기구는 1970년대 후반 이후 경제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1993년 기존 국민계정 편제기준(1968 SNA)을 개정하여 회원국에 국민계정통계 편제시 이를 기준으로 할 것을 권고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계정통계를 작성하는 한국은행에서 새롭게 개정된 편제기준(1993 SNA)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를 이행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수지통계(1998년) 및 국민소득통계(2004년)의 개편을 완료하였다.

한편, 국민계정의 금융계정인 자금순환통계는 그동안 1993 SNA로의 이행을 위하여 금융부문의 분류방안 연구(2001. 7월), 유가증권의 시가평가방안 연구(2001. 11월), 파생금융상품의 도입방안 연구(2003. 8월), 1993 SNA 기준 국외거래 시험 편제(2005. 10월) 등 주요 핵심과제에 대한 준비 작업을 추진해 왔으며, 2006년 6월에 자금순환통계의 개편을 완료하게 되었다.

자금순환통계의 1993 SNA로의 이행을 완료함에 따라 자금순환, 국민소득, 국제수지 등 국민계정통계의 현실반영도가 한층 높아지고 또한 이들 통계간의 연계성도 강화되어 전체 국민계정통계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간 비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계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II. 주요 개편 내용

자금순환통계의 1993 SNA로의 주요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제도 부문에 대한 분류 조정, 금융자산 형태의 신설 또는 변경, 금융자산의 평가에 시가기준 도입과 함께 거래외 요인에 의한 잔액변동을 설명하는 거래외증감표의 신규 작성 등이다.

1. 제도부문 및 금융자산 재분류

가. 부문 분류기준 및 포괄범위 변경

금융부문의 경우 하위부문을 기존 중앙은행, 예금은행, 보험 및 연금, 기타금융기관의 4개 중부문에서 중앙은행, 예금취급기관, 보험 및 연금기금, 기타금융중개기관, 금융보조기관의 5개 중부문으로 변경·확대하였다. 각 하위부문의 포괄범위를 살펴보면 먼저 중앙은행에는 통화당국으로서의 한국은행 및 외국환평형기금이 포함된다. 예금취급기관은 다시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으로 세분되는데, 은행금융기관에는 일반·특수·외은지점 및 은행계지주회사가 포함되며 비은행금융기관에는 신탁,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 투자기관과 우체국예금 등 기타예금취급기관이 포함된다. 보험 및 연금기금에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공제조합과 공무원연금기금·사학연금 등 각종 연금기금이 포함되며 기타금융중개기관에는 증권기관, 여신전문기관, 국민주택기금 등 공적금융기관, 자산유동

화전문회사, 대부사업자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금융보조기관에는 신용보증기관, 자금중개회사, 투자자문회사, 선물회사, 금융결제원 등이 포함된다. 한편, 과거에는 기업부문으로 분류되었던 은행계지주회사, 대부사업자(법인), 자금중개회사, 투자자문회사, 선물회사 등의 경우 1993 SNA 기준 개편에서는 금융부문으로 재분류하였다.

정부부문의 경우에는 기존 정부내 독립부문으로 구분되어 있던 공공비영리기관을 주된 경제활동이나 자금지원 및 통제의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금융부문에 흡수 통합하였다.

(참고1 「1993 SNA 개편 전후 제도부문 비교」 참조)

나. 금융상품의 명칭 및 포괄범위 변경

금융부문의 하위부문이 세분화되고 포괄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예금 및 대출금을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포괄범위를 조정하였다. 먼저 예금의 경우 기존 예금은행의 ‘요구불예금’ 및 ‘저축성예금’과 기타금융기관의 ‘기타예금’을 적립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인 상품은 ‘결제 및 단기저축성예금’으로, 1년 이상인 상품은 ‘장기저축성예금’으로 명칭을 변경·통합하였다. 대출금은 금융기관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과거 ‘예금은행대출금’과 ‘종금사대출금’을 합하여 ‘예금취급기관대출금’으로 통합·변경하였으며 ‘기타대출금’중 서민금융기관(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상호금융 등), 은행신탁, 개발기관 등이 취급하는 ‘예금취급기관대출금’, 국민주택기금 등이 취급하는 ‘공적금융대출금’, 증권회사 등이 취급하는 ‘기타대출금’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유가증권의 경우 우리나라의 채권시장이 기업어음을 제외하면 대부분 장기채권인 점을 감안하여 채권의 장단기 구분을 폐지하는 대신 채권발행기관의 경제적 기능이나 성격에 따라 국채, 금융채, 기업어음, 공공채권, 회사채, 특수채권, 외화채권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참고2 「1993 SNA 개편 전후 금융자산 형태 비교」 참조)

다. 금융자산 형태 신설 및 분류방법 변경

1993 SNA 기준에 의한 자금순환표에서는 기존의 ‘기타금융자산 부채’에 포함되어 있던 금융자산 중에서 금융거래의 중요성 및 거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구분이 용이한 ‘파생금융상품’ 및 ‘콜론·콜머니’를 금융자산 형태로 신설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자금거래 현황을 더욱 자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과거 독립항목으로 구분하였던 ‘비거주자예금’은 비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금융자산 형태에 포함하였으며 ‘무역신용’의 경우 그 성격이 같은 ‘상거래신용’으로 흡수 통합하였다.

— < 참 고 1 > —

1993 SNA 개편 전·후 제도부문 비교

개 편 전			개 편 후		
대부문	중부문	소부문	소부문	중부문	대부문
금융 부문	중 앙 은 행		중 앙 은 행		금융 부문
	예금은행	- 일반은행 - 특수은행 - 개발기관	은행 - 일반은행 - 특수은행 - 외은국내지점 - 은행계 지주회사	예금취급 기관	
		기타금융 기관	저축기관		
	투자기관		뮤추얼펀드		
	증권기관		증권기관		
	여신전문기관 공적금융		여신전문기관 공적금융		
	(신설)		기타중개회사 금융보조기관		
	보험 및 연금	생명보험	생명보험	보험 및 연금	
		손해보험	손해보험 공제조합		
		연금기금	연금기금		
정부 부문	중 앙 정 부		중 앙 정 부		정부 부문
	공공비영리기관		지 방 정 부		
	지 방 정 부		사 회 보 장 기 구		
	사 회 보 장 기 구				
기업 부문	공 기 업	정 부 기 업	정 부 기 업	공 기 업	기업 부문
		정 부 관 리 기 업	정 부 관 리 기 업		
	민간기업	법 인 기 업 비 법 인 기 업	민간기업		
개 인 부 문			개 인 부 문		
국 외 부 문			국 외 부 문		

< 참 고 2 >

1993 SNA 개편 전·후 금융자산 형태 비교

개 편 전	개 편 후
- 금	- 금과 SDRs
- 통화 및 통화성예금	- 통화와 예금
한 은 예 수 금	한 은 예 수 금
현 금 통 화	현 금 통 화
요 구 불 예 금	결 제 및 단 기 저 축 성 예 금
정 부 당 작 예 금	정 부 예 금
- 기타예금	장 기 저 축 성 예 금
저 축 성 예 금	양 도 성 예 금 증 서
양 도 성 예 금 증 서	예 금 은 행 표 지 어 음
예 금 은 행 표 지 어 음	표 지 어 음
비 거 주 자 예 금	(해 당 금 용 상 품 별 로 분 류)
환 매 조 건 부 채 권	환 매 조 건 부 채 권
신 택	신 택
종 금 사 예 치 금	(해 당 금 용 상 품 별 로 분 류)
기 타	기 타 예 금
- 생명보험 및 연금	- 보험 및 연금
- 단기채권	- 채 권
국 공 채	국 공 채
금 용 채	금 용 채
기 업 어 음	기 업 어 음
- 장기채권	공 공 채
국 공 채	특 수 채
금 용 채	회 사 채
회 사 채	수 익 증 권
수 익 증 권	수 익 증 권
외 화 채 권	해 외 증 권
- 주 식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 대 출 금	- 대 출 금
한 은 대 출 금	한 은 대 출 금
예 금 은 행 대 출 금	예 금 취 급 기 관 대 출 금
보 험 대 출 금	보 험 대 출 금
종 금 사 대 출 금	예 금 취 급 기 관 대 출 금
어 신 전 문 기 관 대 출 금	어 신 전 문 기 관 대 출 금
기 타 대 출 금	공 적 금 용 대 출 금
	기 타 대 출 금
- 정부용자	- 정부용자
- 출자지분	- 주식 및 출자지분
	주 식
	출 자 지 분
- 상거래신용	- 상거래신용
- 외환보유액	- 외환보유액
- 무역신용	(상거래신용)
- 직접투자	- 직접투자
- 기타대외채권·채무	- 기타대외채권·채무
- 기타금융자산·부채	- 파생금융상품
	- 콜론·폴머니
	- 기타금융자산·부채

2. 금융자산 추계방법 변경

가. 유가증권 시가평가 도입

주식, 채권 등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의 잔액 평가방법을 취득가 기준에서 시가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주식의 경우 기존에는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모두 포괄하였으나 1993 SNA 개편 이후에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기업의 주식과 같이 유통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주식은 ‘상장주식’으로 분류하여 잔액을 시가평가하고 이외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구분하여 장부가로 평가하되 자금순환통계 발표시에는 상장과 비상장을 구분하지 않고 총액을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다.

나. 금융자산 거래를 총액기준으로 계상

제도부문 분류상 동일 그룹에 속하는 기관간(일반은행간, 일반은행과 특수은행간 등) 예금 및 대출금 거래 등은 동업자 거래로서 서로 상계처리 하였으나 개편 후에는 내부 거래도 모두 포함하여 총액기준으로 계상하였다. 또한 ‘상거래신용’의 경우 기존에는 기업간 거래와 기업과 소규모 개인사업자간의 거래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개인부문의 부채규모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백화점, 자동차회사, 가전회사 등과 같은 기업이 순수가계에 대하여 제공하는 판매신용도 포함하였다.

3. 거래외 증감표 신규 편제

거래외 증감표는 제도단위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금융자산 및 부채의 증감을 기록하는 계정으로써 가격 또는 환율변동, 부실 금융자산에 대한 상각이나 재평가 등 비거래적 요인에 의해 잔액이 변동된 것을 기록한다. 따라서 거래외 증감표는 일정기간 중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플로우 계정과 기초 및 기말시점 잔액계정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표인 것이다.

대상 금융자산으로는 유통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이 발생하는 주식·채권 등의 유가증권, 금융기관의 대손상각이나 재평가 등에 의하여 변동되는 대출금, 그리고 환율변동의 영향을 받는 외화관련 금융자산 등 거의 모든 금융자산이 해당된다. 이러한 거래외 증감표의 작성방법은 금융자산 잔액의 변동액(기말잔액-기초잔액)과 기간 중 실제 거래금액의 차액으로 계상한다.

Ⅲ. 주요 개편 결과

1. 개황

2005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 금융자산 잔액은 6,210.1조원으로 개편 전(5,299.2조원)에 비해 17.2%(+911.0조원)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연관비율(금융자산 잔액/명목GNI)도 개편 전(6.58)에 비해 상승한 7.71을 기록하였다. 한편, 2005년 중 금융자산 증가액은 679.5조원으로 개편 전(417.5조원)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는데 이는 주식 등 유가증권의 시가평가 등 비거래 요인에 의한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

<표 1>

금융자산 잔액 및 증감내역

(단위 : 조원)

	2004년말	2005년 중 증감액			2005년말
		거래요인 ¹⁾	비거래요인 ²⁾		
개편 전(A)	4,881.6	417.5	410.6	6.9	5,299.2 <6.58>
개편 후(B)	5,530.6	679.5	414.4	265.1	6,210.1 <7.71>
차액(B-A)	649.0 (13.3)	262.0	3.8	258.2	911.0 (17.2)

주 : 1) 금융거래표의 자금조달 및 운용 금액

2) 환율변동, 유가증권의 시가평가 등에 의한 거래외 증감 요인

3) ()내는 개편 전 대비 개편 후 증감률(%), < >내는 금융연관비율(배)

2. 제도부문별 현황

가. 기업부문

2005년말 현재 기업부문의 총 금융자산 잔액은 925.5조원으로 개편 전(660.7조원)에 비해 40.1% 증가하였으며, 2005년 중 금융자산 증가액은 80.1조원으로 개편 전(55.9조원)보다 확대되었다.

<표 2>

기업부문 금융자산 잔액 및 증감내역

(단위 : 조원)

	2004년말	2005년 중 증감액			2005년말
		거래요인	비거래요인		
개편 전(A)	604.8	55.9	60.9	-5.0	660.7
개편 후(B)	845.4	80.1	55.8	24.3	925.5
차액(B-A)	240.6 (39.8)	24.1	-5.2	29.3	264.8 (40.1)

주 : ()내는 개편 전 대비 개편 후 증감률(%)

한편, 기업부문의 총 금융부채 잔액은 2,075.7조원으로 개편 전(1,402.4조원)에 비해 48.0% 증가하였으며, 2005년 중 금융부채는 325.7조원 증가하여 개편 전(90.5조원) 보다 크게 확대되었는데, 이는 시가평가로 자본금이 크게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

<표 3>

기업부문 금융부채 잔액 및 증감내역

(단위 : 조원)

	2004년말	2005년 중 증감액		2005년말
		거래요인	비거래요인	
개편 전(A)	1,311.9	90.5	98.2	1,402.4
개편 후(B)	1,750.0	325.7	99.9	2,075.7
차액(B-A)	438.1 (33.4)	235.2	1.7	673.3 (48.0)

주 : ()내는 개편 전 대비 개편 후 증감률(%)

나. 개인부문

2005년말 현재 개인부문의 총 금융자산 및 부채 잔액은 각각 1,407.7조원 및 647.1조원으로 금융자산은 개편 전(1,166.7조원)에 비해 20.7%, 금융부채(617.7조원)는 4.7% 각각 증가하였다. 한편, 2005년 중 금융자산 증가액은 165.6조원으로 개편 전(88.4조원)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는데 이는 보유주식의 가치상승 등 비거래 요인에 의한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

<표 4>

개인부문 금융자산·부채 잔액 및 증감내역

(단위 : 조원)

		2004년말	2005년 중 증감액		2005년말
			거래요인	비거래요인	
금융 자산	개편 전(A)	1,078.3	88.4	83.3	1,166.7
	개편 후(B)	1,242.0	165.6	88.0	1,407.7
	차액(B-A)	163.8 (15.2)	77.2	4.7	241.0 (20.7)
금융 부채	개편 전(C)	559.0	58.8	58.7	617.7
	개편 후(D)	585.5	61.6	61.3	647.1
	차액(D-C)	26.5 (4.7)	2.8	2.6	29.3 (4.7)

주 : ()내는 개편 전 대비 개편 후 증감률(%)

다. 정부부문

2005년말 현재 정부부문의 총 금융자산 및 부채 잔액은 각각 512.2조원 및 215.7조원으로 금융자산은 개편 전(483.2조원)에 비해 6.0% 증가한 반면, 금융부채는 개편 전(231.8조원)보다 6.9% 감소하였다. 한편, 2005년 중 금융자산 증가액은 70.4조원으로 개편 전(71.1조원)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표 5>

정부부문 금융자산·부채 잔액 및 증감내역

(단위 : 조원)

		2004년말	2005년 중 증감액			2005년말
			거래요인	비거래요인		
금융 자산	개편 전(A)	412.1	71.1	71.2	-0.1	483.2
	개편 후(B)	441.8	70.4	65.1	5.3	512.2
	차액(B-A)	29.7 (7.2)	-0.7	-6.1	5.4	28.9 (6.0)
금융 부채	개편 전(C)	177.1	54.7	54.8	0.0	231.8
	개편 후(D)	190.9	24.9	34.5	-9.6	215.7
	차액(D-C)	13.8 (7.8)	-29.9	-20.3	-9.6	-16.1 (-6.9)

주 : ()내는 개편 전 대비 개편 후 증감률(%)

라. 국외부문

2005년말 현재 국외부문의 총 금융자산(우리나라의 대외부채) 및 부채(우리나라의 대외자산) 잔액은 각각 570.8조원 및 361.4조

원으로 금융자산은 개편 전(313.9조원)에 비해 81.9% 증가한 반면, 금융부채는 개편 전(384.3조원)보다 6.0% 감소하였다. 한편, 2005년 중 금융자산 증가액은 139.2조원으로 개편 전(12.7조원)보다 크게 확대되었는데 이는 주로 보유주식의 시가평가 적용 등 비거래요인에 기인한 것이다.

<표 6>

국외부문 금융자산·부채 잔액 및 증감내역

(단위 : 조원)

		2004년말	2005년 중 증감액			2005년말
			거래요인	비거래요인		
금융 자산	개편 전(A)	301.2	12.7	21.6	-8.9	313.9
	개편 후(B)	431.6	139.2	21.6	117.6	570.8
	차액(B-A)	130.5 (43.3)	126.5	0.0	126.5	256.9 (81.9)
금융 부채	개편 전(C)	365.6	18.7	39.1	-20.4	384.3
	개편 후(D)	339.1	22.2	39.1	-16.9	361.4
	차액(D-C)	-26.5 (-7.2)	3.6	0.0	3.6	-22.9 (-6.0)

주 : ()내는 개편 전 대비 개편 후 증감률(%)

마. 금융부문

2005년말 현재 금융부문의 총 금융자산 잔액은 2,794.0조원으로 개편 전(2,674.7조원)에 비해 4.5% 증가하였으며, 2005년 중 금융자산 증가액은 224.2조원으로 개편 전(189.4조원)보다 확대되었는데 이는 금융부문의 포괄범위 확대와 보유 유가증권의 시가평가에 주로 기인한다.

<표 7>

금융부문 금융자산 잔액 및 증감내역

(단위 : 조원)

	2004년말	2005년 중 증감액			2005년말
		거래요인	비거래요인		
개편 전(A)	2,485.3	189.4	173.6	15.8	2,674.7
개편 후(B)	2,569.8	224.2	184.0	40.3	2,794.0
차액(B-A)	84.5 (3.4)	34.9	10.3	24.5	119.4 (4.5)

주 : ()내는 개편 전 대비 개편 후 증감률(%)

한편, 2005년말 현재 총 금융부채 잔액은 2,910.2조원으로 개편 전(2,614.1조원)보다 11.3%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가평가로 자본금이 크게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

<표 8>

금융부문 금융부채 잔액 및 증감내역

(단위 : 조원)

	2004년말	2005년 중 증감액			2005년말
		거래요인	비거래요인		
개편 전(A)	2,458.7	155.3	159.9	-4.5	2,614.1
개편 후(B)	2,665.0	245.1	179.7	65.4	2,910.2
차액(B-A)	206.3 (8.4)	89.8	19.8	69.9	296.1 (11.3)

주 : ()내는 개편 전 대비 개편 후 증감률(%)

3. 금융상품별 현황

주식 및 채권 등 유가증권이 2,322.4조원으로 시가평가 등의 영향으로 인해 개편 전(1,665.4조원)보다 39.4%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개편 전(31.4%)에 비하여 6.0%p 상승한 37.4%를 기록하였다.

통화 및 예금(1,122.0조원)과 대출금(1,107.5조원)은 개편 전 보다 각각 5.9%(62.3조원), 4.5%(47.9조원) 증가하였으나 전체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하였다.

<표 9>

개편 전·후 금융상품별 비교

(단위 : 조원)

	2005년 말		차액 (B-A)
	개편 전(A)	개편 후(B)	
통 화 및 예 금	1,059.7 < 20.0>	1,122.0 < 18.1>	62.3 [5.9]
보 험 및 연 금	243.6 < 4.6>	301.4 < 4.9>	57.8 [23.7]
유 가 증 권	1,665.4 < 31.4>	2,322.4 < 37.4>	657.0 [39.4]
채 권	1,182.2 < 22.3>	1,203.0 < 19.4>	20.8 [1.8]
주 식	397.5 < 7.5>	1,017.4 < 16.4>	619.9 [156.0]
대 출 금	1,059.6 < 20.0>	1,107.5 < 17.8>	47.9 [4.5]
해 외 증 권	457.0 < 8.6>	487.7 < 7.9>	30.7 [6.7]
합 계	5,299.2 <100.0>	6,210.1 <100.0>	911.0 [17.2]

주 : < >내는 구성비(%), []내는 개편 전 대비 증감률(%)

4. 비금융부문 자산

2005년말 현재 비금융부문(정부, 기업 및 개인)의 금융자산(비이자부자산 제외) 잔액은 2,481.2조원으로 개편 전(2,013.2조원)에 비해 23.2%(+468.0조원) 증가하였다. 경제주체별로는 기업부문이 33.4%(+147.3조원)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개인부문과 정부부문은 각각 23.6%(+265.8조원), 12.4%(+54.9조원) 증가하였다.

한편, 2005년말 현재 개인부문의 금융부채에 대한 금융자산 비율은 개편 전(1.98배)에 비해 상승한 2.31배를 기록하였다.

<표 10>

비금융부문 금융자산 및 부채¹⁾

(단위 : 조원)

	개편 전(A)		개편 후(B)		차액(B-A)	
	'04. 12	'05. 12	'04. 12	'05. 12	'04. 12	'05. 12
비금융부문 자산	1,824.5	2,013.2	2,180.0	2,481.2	355.5	468.0 (23.2)
개 인	1,043.5	1,127.4	1,228.6	1,393.2	185.1	265.8 (23.6)
기 업	405.6	441.3	530.7	588.6	125.1	147.3 (33.4)
정 부	375.4	444.5	420.6	499.4	45.2	54.9 (12.4)
비금융부문 부채	1,366.6	1,516.1	1,390.2	1,518.1	23.6	1.9
(개 인)	<1.34>	<1.33>	<1.57>	<1.63>		
	510.8	568.0	542.6	602.2	31.8	34.2
	<2.04>	<1.98>	<2.26>	<2.31>		

주 : 1) 상거래신용, 기타금융자산 등 비이자부자산(부채) 제외

2) ()내는 개편 전 대비 개편 후 증감률(%), < >내는 금융자산/금융부채(배)

< 참 고 3 >

개편 전·후 금융자산 및 부채 잔액 비교

1. 금융자산

(단위 : 조원)

		2004. 12	2005. 3	2005. 6	2005. 9	2005. 12
금 영	개편전(A)	2,485.3	2,543.2	2,598.9	2,653.6	2,674.7
	개편후(B)	2,569.8	2,632.7	2,690.6	2,760.3	2,794.0
	증감(B-A)	84.5	89.5	91.7	106.7	119.4
정 부	개편전(A)	412.1	433.7	449.0	462.2	483.2
	개편후(B)	441.8	475.2	491.2	507.7	512.2
	증감(B-A)	29.7	41.5	42.1	45.4	28.9
기 업	개편전(A)	604.8	619.8	626.6	640.3	660.7
	개편후(B)	845.4	869.4	874.6	898.4	925.5
	증감(B-A)	240.6	249.6	248.0	258.1	264.8
개 인	개편전(A)	1,078.3	1,097.3	1,124.1	1,141.9	1,166.7
	개편후(B)	1,242.0	1,265.7	1,296.4	1,345.6	1,407.7
	증감(B-A)	163.8	168.3	172.3	203.7	241.0
국 외	개편전(A)	301.2	304.4	309.3	319.2	313.9
	개편후(B)	431.6	475.4	510.7	543.5	570.8
	증감(B-A)	130.5	171.0	201.4	224.2	256.9
합 계	개편전(A)	4,881.6	4,998.4	5,107.9	5,217.3	5,299.2
	개편후(B)	5,530.6	5,718.3	5,863.5	6,055.4	6,210.1
	증감(B-A)	649.0	719.9	755.5	838.1	911.0

2. 금융부채

(단위 : 조원)

		2004. 12	2005. 3	2005. 6	2005. 9	2005. 12
금 영	개편전(A)	2,458.7	2,518.6	2,564.1	2,607.5	2,614.1
	개편후(B)	2,665.0	2,730.6	2,787.4	2,858.7	2,910.2
	증감(B-A)	206.3	212.0	223.3	251.2	296.1
정 부	개편전(A)	177.1	206.4	222.2	225.2	231.8
	개편후(B)	190.9	211.3	223.7	219.1	215.7
	증감(B-A)	13.8	4.9	1.5	-6.1	-16.1
기 업	개편전(A)	1,311.9	1,334.2	1,353.3	1,379.2	1,402.4
	개편후(B)	1,750.0	1,843.7	1,895.9	1,991.5	2,075.7
	증감(B-A)	438.1	509.5	542.6	612.2	673.3
개 인	개편전(A)	559.0	559.3	581.2	596.0	617.7
	개편후(B)	585.5	589.3	612.5	627.6	647.1
	증감(B-A)	26.5	30.0	31.3	31.6	29.3
국 외	개편전(A)	365.6	366.4	368.8	381.7	384.3
	개편후(B)	339.1	343.2	343.8	358.5	361.4
	증감(B-A)	-26.5	-23.1	-25.0	-23.2	-22.9
합 계	개편전(A)	4,872.3	4,984.9	5,089.6	5,189.7	5,250.3
	개편후(B)	5,530.5	5,718.2	5,863.3	6,055.3	6,210.0
	증감(B-A)	658.3	733.3	773.8	865.6	959.7

IV. 향후 추진계획

자금순환통계의 1993 SNA 기준으로의 개편은 금융기관 등 조사대상기관으로부터 시가평가 자료의 입수가 가능한 2002년말 이후를 대상으로 단계별로 추진하여 왔다. 2006년 6월말 현재는 2004년말 이후 분기통계에 대한 개편을 완료한 상태이며 2002년말 이후 분기 및 연간 시계열은 2007년 중 완료예정으로 개편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자금순환통계는 제도부문별 금융자산의 취득과 금융부채의 발행을 금융자산 형태별로 기록한 것으로 자금부족부문의 조달재원과 자금잉여부문의 자산배분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유용하다. 그러나 자금부족부문이 어떤 부문으로부터 어떤 금융자산을 이용하여 부족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자금잉여부문이 어떤 부문에 어떤 금융자산으로 잉여자금을 운용하였는지를 파악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3 SNA에서는 ‘상세 자금순환표’의 작성을 권고하고 있다. 상세 자금순환표는 금융자산 유형과 채무자 부문을 매트릭스 형태로 교차 분류하는 ‘금융자산 기록표’와 금융부채 유형과 채권자 부문을 매트릭스 형태로 교차 분류하는 ‘금융부채 기록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이러한 상세 자금순환표를 작성하기 위해 우선 2007년까지는 영국 등 주요국의 작성사례에 대한 자료수집 및 편제방안에 대한 연구를 계획하고 있으며, 2008년의 시험편제 기간을 거쳐 2009년부터 연간 기준으로 정식 편제·공표할 예정이다.

<경제통계국 자금순환반 장진욱 조사역>